

지면안내

02

대학생활

'김한성'의 대학생활 적응기

03

학내 단체

학내 단체, 묻고 더블로 가!

04

광고

제48기 수습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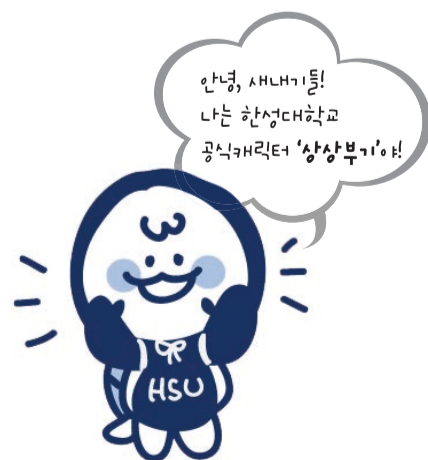
## 예비 한성인을 위한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수시 신입생 OT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수시 신입생 OT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IT공과대학)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정시 신입생 OT		신입생 학부모 OT	
2/24	2/25	2/26	2/27	2/28	2/29	
← 새내기 새로배움터 →				- 신입생 수강신청 - 겨울방학 종료		

\* 2020학년도 예비 신입생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추후 공지 예정  
\* 영어커뮤니케이션 반편성고사 추후 공지 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자사령

임  
부장기자 박희연(사회과학 2)  
정 기자 안현경(사회과학 2)  
퇴  
수습기자 김주원(상상력 1)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 ‘김한성’의 대학생활 적응기

〈편집자주〉

벽찬 마음으로 대학 입학 손꼽아 기다리던 예비 새내기, 김한성. 한성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알아보는데, 트랙이라고? 학과도 전공도 아닌 ‘트랙’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어리둥절한 것은 물론, 학교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트랙제, 복지 혜택 등 궁금한 것 투성인데, 아직 예비 새내기인지만 물어볼 만한 곳이 없다. 이런 그를 위해 안 기자가 나섰다. 한성대학교의 대학생활이 궁금한 예비 새내기,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안현경 기자 dksqsrud24@naver.com

야 너두? 응, 나두 이제 융합형 인재

3년 전, 우리학교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꿈꿨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본교의 트레이드마크인 ‘트랙제’다. 트랙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트랙을 선택해 전공 적합성과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트랙 조합을 통해 학문 간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우리학교 학생은 어느 학부로 입학하든 본인이 듣고 싶은 트랙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며 타 단과대학의 트랙도 선택할 수 있다.

트랙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학교에 개설된 트랙을 알아보자. 우리학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과 이틀 내 10개의 학부(과)가 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예술학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부, 디자인대학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ICT디자인학부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IT공과대학은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로 구성돼 있다.

학부 내에는 총 45개의 트랙과 예술학부 내 5개의 전공이 있으며, 학생들은 트랙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후술할 4개의 이수 과정을 밟게 된다. 먼저,

## 한성대학교 트랙 및 전공

###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영미문화문화, 영미언어정보, 한국어교육, 문학문화콘텐츠, 글로컬역사, 역사문화콘텐츠, 도서관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
- 예술학부**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 이민·다문화트랙

### 디자인대학

-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
- ICT디자인학부**  
뉴미디어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 제품·서비스디자인, 브랜드·패키지디자인, 인테리어·코디디자인, VMD·전시디자인,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부**  
국제무역, 글로벌비즈니스, 기업·경제분석, 금융·데이터분석, 공직진출, 법 & 정책, 부동산자산관리, 스마트도시계획·환경비즈니스, 기업경영, 벤처경영, 회계·재무경영

### IT공과대학

- 컴퓨터공학부**  
모바일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 웹공학
- 기계전자공학부**  
전자, 정보시스템, 기계설계, 기계자동화
- IT융합공학부**  
지능시스템,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ICT융합엔터테인먼트
- 스마트경영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 생산물류시스템, 컨설팅

‘융합전공’은 제1트랙(또는 전공)과 제2트랙(또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조합이며, ‘융합전공+부전공’은 융합전공에 더하여 제3트랙(또는 전공)을 별도로 취득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단일전공’은 예술학부 내 5개의 전공 및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에

속한 학생만 2개의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단일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부전공을 선택하면 이는 ‘심화전공+부전공’으로 전환되고, 2개의 전공과 1개의 부전공을 이수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재학생들은 어떤 조합으로 트랙을 선택했을까? 김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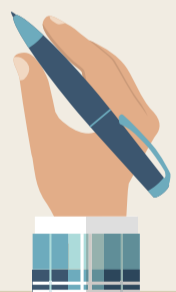
(ICT 2) 학우는 “게임 분야로 진로를 생각해, 제1트랙을 게임 일러스트레이션트랙으로 선택했다. 제2트랙을 선택할 때는 트랙제를 통해 수강한 다양한 기초 트랙들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돼, 인테리어·코디디자인트랙을 제2트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부

소속인 은정우(사회과학 2) 학우는 “제1트랙은 사회과학부 공직진출트랙, 제2트랙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글로컬역사트랙으로 정했다. 장래희망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1트랙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제2트랙의 경우 1학년 때 수강했던 다양한 트랙 중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트랙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랙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향후 진로를 보다 넓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트랙을 선택하기는 금물! 트랙 선택 시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이민·다문화트랙은 제2트랙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상상력인재학부 소속 학생은 예술학부의 트랙을 제1트랙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강순자(학사지원팀) 부장은 “순수예술 분야는 전공 기초 지식 및 스킬이 반드시 필요한 전공”이라며 “비실기 학생이 제1트랙으로 예술학부를 선택하면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예술학부를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제1트랙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 트랙 선택은 진로설계의 시작점이다. 선택들의 트랙 조합 이유와 트랙 선택 시 유의할 점을 참고하여 남들보다 ‘이유 있는’ 트랙 조합을 선택해 보자.

## 트랙 Q&A, 안 기자가 답하다!



Q1. 트랙은 언제 선택할 수 있나요?

A1. 2020년에 입학 예정인 20학번 예비 새내기들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트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서 트랙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종료 시에는 별도의 변경 기간을 제외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융합전공+부전공’, ‘심화전공+부전공’에 해당하는 제3트랙(혹은 전공) 선택은 5학기에서 7학기 사이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해 매년 2월과 8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졸업까지 트랙을 몇 학점 들어야 하나요?

A2. 제1트랙과 제2트랙을 선택하는 ‘융합전공’을 따르면 각 39학점씩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3트랙까지 추가한 ‘융합전공+부전공’을 선택하면, 제1·2트랙 각 39학점과 제3트랙 21학점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양과목을 적게 이수하거나, 시간표 구성 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단일전공’은 전공 78학점을, ‘심화전공+부전공’은 전공 57학점과 부전공 2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Q3. 트랙을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나요?

A3. 트랙 변경 신청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부터 가능합니다. 제1·2트랙 모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타 단과대학으로 제1트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과) 신청을 통해 선발돼야 합니다. 상상력인재학부로 입학한 학생도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제1트랙의 학부로 소속되기에 이 학생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에 수강했던 트랙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트랙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학교 복지, 이젠 내 것!

트랙은 마스터했지만, 아직 김한성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대학생활 중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복지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던가. 우리학교에 어떤 복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편리한 대학생활을 쟁취하자.

### 학습활동 시설, 고학점의 지름길

학교생활 중 어디서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한가? 그렇다면 학교 곳곳에 있는 학습시설을 찾아보자. 먼저 우리학교에는 미래관에 2개의 열람실, 우촌관 열람실까지 총 3개의 열람실이 있다. 평소 열람실을 이용하는 서성진(사회과학 2) 학우는 “우리학교의 열람실은 시험기간이 아님에도 학업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며 열람실 이용을 독려했다.

열람실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재학생의 학습활동, 회의 및 세미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창업라운지’와 ‘스터디라운지’도 준비돼 있다. 또한, 연구관에 위치한 ‘상상파크’의 1층에는 상상라운지와 오픈 스튜디오가 있으니, 넓고 쾌적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들은 활용해보자.

이렇듯 한성대학교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업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보자.

### 노트북 대여, 손과 가방을 가볍게

아직 노트북을 구매하지 못했는가? 혹은 노트북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가? 걱정하지 마라. 상상관 3층에 위치한 통합기자재실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은 대여 당일 본인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 신청 시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오인성(컴공 2) 학우는 “학교에서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빌린 적이 많다”며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오지 않아도 되고, 학교 노트북의 성능이 좋아 간단한 코딩 연습도 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전했다.

### 장학금, 샘솟는 나의 열정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학교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 먼저, ‘성적장학금’이다. 성적장학금은 한성

인재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과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으로 나뉜다. 여기서 한성인재포인트란 각 교과 포인트에 비교과 포인트가 더해진 창의적전문지수, 포용적사회지수, 열린세계지수를 모두 합산한 포인트다. 먼저,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은 해당 트랙의 학년에서 한성인재포인트가 가장 높은 자에게 수업료의 70%가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다음으로,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은 창의적전문지수, 포용적사회지수, 열린세계지수의 각 영역별 지수가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50%, 30%가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다음은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장학금’이다. 교육장학금은 ▲교내 프로그램 지원 ▲외부

학원 수강료 지원 ▲공인기관 시험응시료 및 특허출원 관납료 지원 ▲전공 분야 학회 가입비 및 논문 심사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장학금의 총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1학년은 30만 원, 2학년은 누적금액을 포함하여 50만 원, 3·4학년은 누적금액을 포함하여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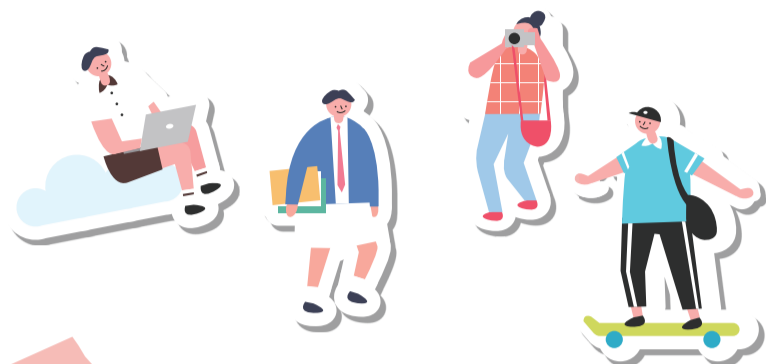
이외에도 가사곤란자를 위한 ‘한성복지장학금’, 능력개발장학금의 일종인 ‘한성미래장학금’이 있으며, ‘한성가족장학금’과 ‘다자녀장학금’ 외 14개의 장학금이 포함된 ‘총장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참고하여 ‘멘토같은’ 새내기가 되어 보자.

# 학내 단체, 문고 더블로 가!

### 〈편집자주〉

성인이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밀려오는 캠퍼스 라이프의 로망! 예비 새내기라면 누구든 붕어빵 찍어내듯 일상을 보낸 학창 시절과는 달리,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하지만 설레는 한편으로, 더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막막하기 마련. 학내 활동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찾아보지만 총학생회, 학보사, 동아리 등 단체의 종류도 다양해 혼란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름하여 '박 기자와 최 기자가 알려주는 학내 단체 토크'이다. 남들과 똑같은 대학생활은 싫다는 새내기들, 문고 더블로 갈 준비는 되었는가.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한성의 오늘을 이끌다

대학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축제를 떠올려보자. 넘쳐나는 사람들과 웃음 소리, 그리고 대망의 연예인 공연까지... 모두가 행복한 그 현장에서 이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학생자치기구 부원들이다.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 우리들 곁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축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이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학생자치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궁금하거나, 혹은 그 부원이 되고 싶은 새기기를 위해 4개의 중앙 학생자치기구부터 과 학생회까지 알아봤다.

중앙 학생자치기구는 총학생회(이하 총학),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동연을 제외한 학생회 성격을 가진 4개 기구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총학은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학생들의 불만사항과 개선점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학교의 총학은 ▲운영국 ▲감사국 ▲기획국 ▲정책국 ▲홍보국 ▲졸업준비국 등 6개의 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 주관

하고 있어 학생들의 문화 증진도 책임지고 있다. 박민수(컴공 3) 총학생회장은 "총학은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그 원인 역시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며 "총학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필요 시에 주저 말고 찾아오라"고 답했다.

한편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 납부한 학생회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이때 누구보다 예리하게 학생회비를 관리 및 감사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총대다. 총대는 ▲운영국 ▲기획국 ▲정책국 ▲홍보국 ▲사무국 등 6개의 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소속된 감사위원회는 총학, 총대, 학복위, 단대 학생회, 동연, 과학생회 등 다른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장예준(사회과학 3) 총대의원장은 "총대는 학내 최고 감사기구이자 최고 의결기구로서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총회 진행, 학칙 개정, 총선거 진행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기구도 있다. 학복위다. 학복위는 학생들의 더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대역사업 및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로, ▲총무국 ▲운영국 ▲기획국 ▲정책국 ▲홍보국 ▲연대국 등 6개의 국으로 구성돼 있다. 진리관 2층에 위치한 학복위실에서는 보조배터리, 공학용 계산기, 우산 등 여러 물품을 대여할 수 있어 해당 물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차주는(사회과학 3) 학생복지위원장은 "학복위 SNS 활성화를 통한 학우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낙후 시설 정비 등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 편의시설과 제휴를 맺어 학우들이 교외에서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대학 전체가 아닌 각 단대 및 학과를 대표하는 기구는 무엇일까. 바로 단대 학생회다. 단대 학생회의 경우 단대의 최고 기구로서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등 4개의 단대와 상상력인재학부의 학생회로 구성돼 있다. 단대 학생회는 각 단대별 행사나 모임 등을 주관하고 진행해 해당 단대의 발전에 노력한다. 특히 학과 및 트랙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SNS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단대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4개의 단대에 속해있는 학과별로 과학생회가 있다. 과학생회는 학과 및 트랙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생의 원활한 학과 생활을 돕고자 노력한다. 또한 학과 내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한성의 오늘을 비추다

낮설지만 알고 보면 학내에서 절대 없어서 안되는 호빵 속 앙금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프레스센터다. 한성대신문사, 한성대학교 방송국(이하 HBS), 영자신문사(이하 HANSUNG TODAY)로 구성된 프레스센터는 총장 직속 기구로서 학내 언론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한성대신문사는 학기 중 3주에 1번을 주기로 분지인 <한성대신문>을 발행하는 학내 유일의 언론지다. 이들은 학내 여론을 형성하고 보도, 사회, 문화, 학술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분부를 견제하고,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을 제3자로서 관조하는 언론 본연의 업무 역시 하고 있다. 흔히들 '신문사를 떠올리면 글을 잘 써야 하지만, 작문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장선아(사회과학 3) 편집국장의 대답이다. 장 국장은 "글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신문사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는 끈기,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여기는 자유의 소리, 진실의 소리, 한성대학교 방송국입니다"라는 내레이션 들을 수 있다. 바로 학내 방송 기구인 HBS의 방송이다. HBS는

학생들에게 우리학교의 소식 및 정보, 사회트렌드 등을 학내에 오디오와 영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경아(인문 2) 실무국장은 "방송국 입사와 동시에 각종 교육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뛰어난 편집 능력과 작문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HANSUNG TODAY>는 학내 유일의 영자신문사다. 이들은 1년에 총 4번의 신문을 발행하여 영어로 학내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자신문사에 입사하려면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김태욱(역사문화 4) 편집국장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실함만 있다면 모두 영자신문사의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종종 프레스센터에 다가가기 어려워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활동하기에 마냥 쉽지만 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문, 편집, 연출 등 각종 능력이 향상되는 보람과 함께 소중한 결과물이 가져다주는 성취감 역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학교 소식을 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언론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다면 프레스센터에 도전해 보자.



## 한성의 오늘을 꾸미다

한성을 이끄는 학생회와 그것을 비추는 프레스센터가 있다면, 한성의 모습을 더욱 다채롭게 꾸미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동아리'다. 국어사전에서는 동아리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패를 이룬 무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동아리란 공통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의미한다. 대학교의 동아리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그 종류도 무수하다. 타대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합동아리도 있지만, 학내에는 분과별로 나뉜 각종 동아리들이 애당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전국 각지의 학생이 모인 한성대학교의 동아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뤄져 있을까? 먼저 우리학교의 동아리는 ▲공연예술 ▲종교 ▲학술 ▲체육 ▲평면예술 ▲취미봉사 등 6개 분과로 나뉘며, 총 39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활동 분야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해당 성격을 가진 동아리가 특정 분과에 소속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특정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그 동아리의 분과를 확인해보자. 동아리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분과더라도 그 동아리 고유의 특성은 어느 하나 동일한 것 없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고 있으므로, 대뜸 소속 분과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금물이다. 각각의 동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찾아보고 입부를 결정한다면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입부 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동아리방 상시 이용이다. 동아리방은 인성관 및 지선관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재학생들에게는 무료한 공간 시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좋은 휴식 장소로 쓰인다. 또한 동아리 부원에게는 매학기 당 비교과 포인트 30pt가 지급되고 있어, 비교과 포인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한성대 동아리 알아보기

- 공연예술분과** ▶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국회, TRIAX, NOD, MGOP, 4호선마이크
- 종교분과** ▶ CCC, UBF, 로사리오, JOY 선교회, MF
- 학술분과** ▶ VISION, 경제학연구회, H-LEP, TIME, 셉들, FLASH, DC&M, ASPIRE, TeamODD
- 체육분과** ▶ HTM, 터틀스, UP, 피닉스, 버팔로, 한검회, 한일
- 평면예술분과** ▶ P.I.G, 이무기, 영화다숨, 매니니로, 한성타이포
- 취미봉사분과** ▶ 유스호스텔, 해랑사리우, 별조각, 남동이

한성대신문사

# 제48기 수습기자 모집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지닌 자, 우리는 '기차'입니다.



## 01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  
(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02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 03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04 모집기간

- 1차 모집  
1월 13일(월) ~ 2월 7일(금)

## 05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또는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06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 카카오톡 채널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